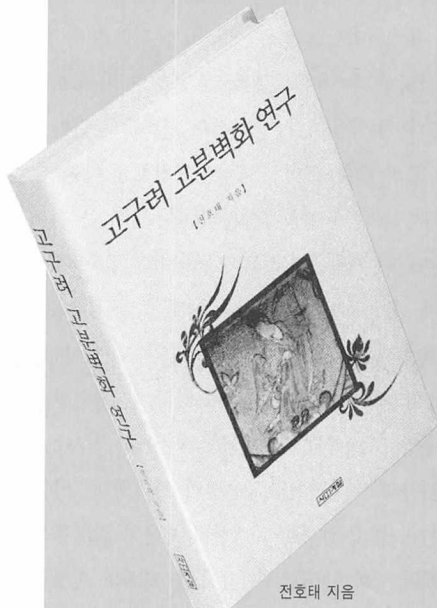


서평

### 벽화에 나타난 내세관 새롭게 해석 고분벽화 중복 설명은 욕에 티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전호태 지음  
사계절/A5신/516면/29,000원

고구려 고분벽화의 역사성이나 위대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우리 학계의 사정인 바,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

전교수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의미를 한마디로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작품 제작 당시의 현실사회와 죽은 사람의 의식 속에 담겨 있던 내세가 때로는 생생하게, 때로는 각색된 채 당대의 현재성과 초월성이 교묘하게 교직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다고 했다.

전교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출된 고구려인들의 내세관을 탐구하기 위해 저서를 3부로 나뉘는데, 1부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계세적(繼世的) 내세관을, 2부는 전생적(轉生的) 내세관을, 3부는 혼합적(混合的) 내세관을 각각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들 3부의 구성을 세 시기구분과 일치시키고 있어 주목을 끈다. 제1기는 생활풍속계와 사신계가 공존하지만 생활풍속계 벽화가 고분벽화의 주류를 이룬다. 본문에서는 생활풍속계 벽화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벽화 제재별로 중국의 화상적, 고분벽화와 비교함으로써 장의미술(葬儀美術)의 수용 과정을 설명하고 고구려 제래의

계세적 내세관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제2기는 생활풍속계·사신계·장식무늬계가 함께 나타나는 시기로서, 주류를 이루는 장식무늬계 벽화와 불교와의 관련성을 비교한다. 연꽃무늬 장식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화생(淨土化生)의 주체로서 불교의 전생적 내세관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3기는 사신계가 주류이자 유일한 주제가 되는 시기로, 장식무늬계 및 생활풍속계 벽화는 사신계 벽화에 부속된 제재로 보고 있다. 이 사신계 고분벽화가 오행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계세적 내세관과 그 연장선상에서 성립한 승선적(昇仙的) 내세관을 중심 줄기로 보고, 이와 같은 흐름을 내세관의 계기적 변화 및 혼합의 과정으로 해석해 이를 전생적 내세관이 덧붙여진 혼합적 내세관이라고 했다.

전교수의 역작을 쉽게 논평하기는 부적절하지만 한두 가지 옥석을 가린다면, 이 책은 근 백기에 달하는 벽화고분을 고분 구조, 벽화 내용, 그린 시기, 주인공 등으로 구분해 서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절실히 느끼게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의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인 고분벽화의 편년을 단순히 표(시안)로 작성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 논고가 아쉽다. 그리고 많은 부주를 편의상 뒤에 한데 모았는데 난해한 고분벽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각주를 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근 백기에 달하는 벽화고분이 어디 한 특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분벽화를 각 시기마다 서술하자니 같은 고분벽화가 이중 삼중으로 설명된다. 특히 장천(長川) 1호분의 경우는 본문에서 누차 서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표(附表)에서도 같은 내용이 다섯차례나 반복된다. 부표도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부주와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록도 전체적으로 본문에 서술된 것들이기 때문에 귀한 지면을 채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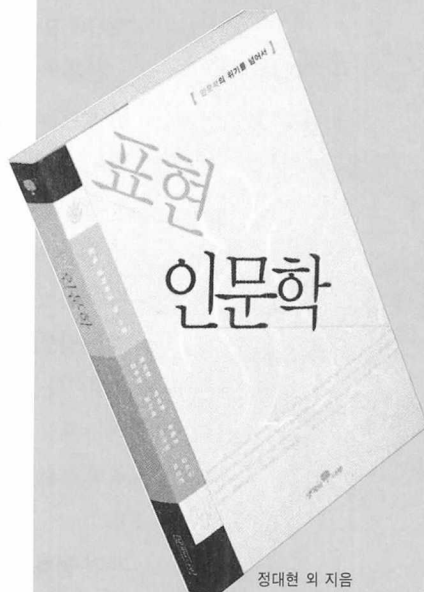
### 이형구

선문대 역사학과 교수. 저서 《한국고대문화의 기원》 《광개토태왕릉비 신연구》 《고구려의 고고문화》 외.

서평

### 글쓰기 중시하는 새로운 인문학 삶의 무늬 담아낸 표현성은 부족해

《표현 인문학》



정대현 외 지음  
생각의나무/A5신/422면/13,000원

이 책의 여러 쟁점 중 나는 '표현 인문학'의 '표현성'에만 주목해서 간략한 비평을 단다.

혹자들이 얼핏 낯설게 느낄, 그러나 나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제는, 이 《표현 인문학》이 '표현 인문학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성공했는가 하는 것이다. 다름 아닌, '표현 인문학'이라면, 필경 자신의 '표현'을 통해서 그 범주와 생리의 정당성을 완결시켜야 할 것이며, 만일 표현성이 부실한 개념들의 병렬, 즉 기의(記意)의 강박으로 일관했다면 그것은 이해 인문학, 그 중에서도 낡은 인식론 중심주의의 아류로 환원시키는 자가당착이기 때문이다.

고전 인문학을 글읽기에 치중한 '이해 인문학'으로, 현대인문학을 글쓰기를 중시하는 '표현 인문학'으로 대별한 것은 크게 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실, 서양철학사의 흐름은, 보기(플라톤)⇒듣기(헤겔·하이데거)⇒읽기(술라이어마허·가다머)⇒말하기(비트겐슈타인)⇒쓰기(테리다)로 이어지는 맥락이 있고, 20세기 후반 이후의 인문학이 쓰기(표현)에 매달리는 근거에는 나름의 풍성한 배경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쓰기' 다음의 학문지평을 '걷기'로 예시하면서, 나름대로 '보행(步行)의 철학'으로서의 인문학

에 천착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들은 당연한 절차로서 인문학의 위기, 현대인간의 새로운 조건과 지형, 그리고 표현 인문학의 구성과 지향, 그 조건과 한계를 따진다. 이 대목은 기존의 인문학적 성과/쟁점과 겹치는 논의들로 가득하다. 이 논의는 포괄적이며 다양하지만, 새롭거나 섬세하지 않다. 인문학이 신기(新奇)를 좇지 않고, 낡고 큰 문제들을 끝없이 재서술/재해석/재평가하기를 즐긴다는 사실을 들어 창신(創新)의 욕심을 자제한다고 치자. 하지만 문제는, 몇몇 대목을 빼면, 논의의 층(層), 맥(脈), 결에서 인문학 고유의 섬세와 정치(精緻)를 보여주지 않으며, 따라서 《표현 인문학》 그 자체의 표현성이 심각히 훼손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서술은 개성과 문체, 울림과 결을 놓쳐버린 건조한 합리주의의 전형을 보인다. '표현 인문학'은, 니체의 글투를 빌면, "재기도 열정도 없는 평화의 인문학"이 돼서는 곤란하다.

나는 인문학에 '대한' 글이 아니라 '인문학으로서의 글쓰기'를 즐기차게 강조해왔다. '표현 인문학'의 이념과 깊이 겹치는 주장이다. 인문학자들의 다수가 방대한 지식을 머리 속의 '뜻'으로만 체계적으로 구심화(求心化)하고 있을 뿐, '표현'인문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쓰기로써 풀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테면 소제주의에 머물러, '인문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책의 의도와 지향, 그리고 기존의 성취를 종합해서 전망을 궁리하는 필자들의 노력은 매우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짧은 비평문이 주목한, 그 노력 자체의 '표현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더구나 유종호 교수 같은 빼어난 표현 인문학자까지 가세한 작업이라니! 인문학, 특히 표현 인문학이라면, 주제와 방향만으로 부족하다. 최소한 뜻과 글의 창의적 교호를 통해서 삶의 이력과 개성이 담긴 무수한 이치[일리(一理)]들을 삶의 무늬[인문(人文)]로 담아내는 표현(성)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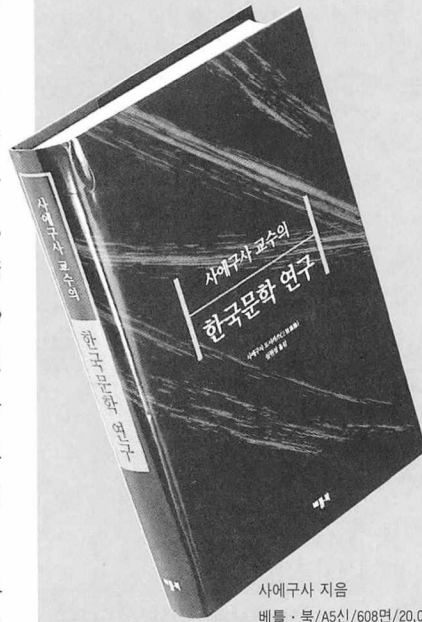
### 김영민

전주 한일대학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저서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지식인과 심층근대화) 외.

### 서평

## 엄격한 실증주의 연구의 모범 한국문학의 관습과 전통도 고려해

### 《사예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1977년 계간지 《문학과지성》에 〈굴복과 극복의 말〉이라는 한국어 논문을 발표하면서 국내에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사예구사 교수는 외국인 한국문학 연구자 가운데 단연 높은 평판과 신망을 얻어왔다. 대략 이십여년에 걸쳐 발표된 논문을 모은 《사예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를 보면 그 평판과 신망이 실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임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이광수에 관한 세 편의 장편논고를 비롯한 일련의 논문은 한국문학에 대한 너그러운 정신적 투자, 풍부하게 축적된 문헌학적·역사학적 지식, 문학작품과 공명(共鳴)하는 비평가의 마음이 없었다면 거두기 어려웠을 성과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문헌학적 기초가 확고한 문학연구라는 점에서 우선 교훈적이다. 작품의 판본에서 작가의 전기에 이르기까지 문헌상의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는 저자의 연구는 실증주의의 한 모범을 보여준다. 정지용의 〈향수〉에 나오는 '회돌아' '해설피' '그립어' '석근' 등의 단어가 〈두시언해〉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향수〉의 상호텍스트적 연관을 확인한 성과만 보더라도 저자의 실증적 고찰은 경탄할 정도로 엄밀하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이 단

지 문헌학적 사실 자체의 복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로 작품이나 작가를 하나의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세계로 그려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저자의 《무정》론이나 이상론은 그런 비평적 묘사의 의지를 성공적으로 표현한 사례다.

저자에게는 준엄한 실증주의자의 모습과 함께 문학의 관습과 전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역사주의적 비평가의 풍모가 있다. 비평가로서 저자는 한국문학이 다른 나라의 문학과 공유하고 있는 성질보다는 한국문학에 특유하다고 생각되는 성질에 유념하고, 한국문학이 그 역사 속에서 형성한 그 나름의 '유형'에 주목한다. 저자가 '한국문학의 전통' 또는 유형이라고 부르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주제학적 구성물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가설이다. 하지만 그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것처럼 날카롭게 한국문학의 전통을 의식하는 비평가가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다. 한국문학의 전통에 비취 신경숙-윤대녕 세대의 문학적 새로움을 밝혀낸 저자의 논평에서는 단련된 전통 감각에서 얻어진 비평적 혜안과도 만나게 된다.

저자의 연구는 한국문학에 조예가 깊은 외국인을 상기시킨다기보다는 학문과 비평의 보편적 원리에 충실한 문학연구가를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저자의 학자적·비평가적 개성의 근저에서는 암암리에 일본이라는 존재가 느껴진다. 그 치밀한 실증의 의지에서 문헌학의 관습이 우세한 일본을, 작가의 체험과 문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 해석의 편향에서 사소설의 전통을 지닌 일본을 떠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저자의 일본적 감각은 한국문학 해석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또한 의미 있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저자는 외국문학에 종사하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사람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예구사라는 마음 속에서 한국문학은 그 밝음과 어둠, 직선과 곡선을 비쳐주는 명징한 거울 하나를 얻었다. 한국문학에 흔치 않은 행운이다.

### 황종연

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교수. 논문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비루한 것의 카니발) 외.